

광주보건대 '걷기좋은 영산강 만들기 캠페인'



광주보건대학교(총장 김양학) 산학협력단은 최근 응급구조과·물리치료과·간호학과 등 65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좋은 영산강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무등로타리클럽, 다문화가족센터 차량지원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무등로타리클럽(회장 김용동)이 최근 다문화 이주 여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차량 1대를 기증했다. (광주무등로타리클럽 제공)

광주서부경찰 '명예경찰소년단' 위촉



광주서부경찰(서장 김홍균)은 지난 27일 서부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제14기 명예경찰소년단 위촉식'을 진행하고 명예경찰소년단 65명과 지도교사 6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서부경찰 제공)

진암사회복지재단, 무료급식지원 2000만원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진암사회복지재단(이사장 김인순)은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방문해 최상준 회장에게 '행복급식소' 무료급식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행복급식소' 급식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제주 삶 담긴 전통 옹기 세계유산 가치”

‘제주 옹기’ 책으로 출간 광주출신 엄미경 제주대 교수

“제주옹기에 담긴 인생을 들으며 제주문화와 역사를 발견했어요.”

제주옹기는 지역민들이 제주에서 나는 재료에 고유 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었다. 그래서 지역문화와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다. 제주대학교 엄미경(여·45)교수(사회교육과)가 최근 ‘제주옹기와 사람들’(도서출판 선인)을 출간했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엄미경 교수가 지난 2003년 제주도에 터전을 잡고, 제주옹기에 관심을 갖게 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제주에서만 발달했던 돌가마, 유약을 쓰지 않는 제주 옹기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 반면, 도공과 옹기장수 등 옹기를 만들고 확산시킨 사람들의 증언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처음이다.

“제주민들은 화산섬이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유약을 쓰지 않는 ‘숨 쉬는 제주옹기’를 만들었어요. 제주옹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아 가마 속에서

불과 직접 접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색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제주도는 마실 물이 귀해 이를 담은 옹기가 중요하다. 또 옹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진흙이 일부 지역에서만 채취되고, 점도도 낮아 옹기 만들기 어렵다. 그렇지만 씨항아리, 물독, 간장독 등 3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옹기가 탄생했다. 엄미경 교수는 “제주옹기가 전남으로부터 유입됐지만 유약과 흙이 귀하고 돌이 많은 제주의 특수 상황에서 고유 특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제주옹기 100여 점을 수집해, 가지각색 옹기가 집 안에 빼곡히 전시돼 있다고 한다.

1950년대 플라스틱이 등장해 값싸고 가벼운 그릇이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유입돼 옹기생산도 쇠락의 길을 걸었다. 동시에 옹기를 만들던 이들도 하나, 둘 본업을 포기했다. 재래공업이던 옹기가 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옹기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엄미경 교수는 옹기 만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하나의 옹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손으로 빚는 도공장부터 가마를 만드는 굴대장, 불을 조절하는 불대장까지 여러 사람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업과정은 끈끈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밑거름이 됐다. 엄미경 교수는 이러한 제주옹기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옹기에 관한 책을 쓴 그녀는 커피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냈다. 엄미경 교수는 “커피가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커피를 즐기고 삶에 깊숙하게 들어온 만큼 연구해 볼 예정”이라며 “커피를 처음 우리 땅에 들여온 인물들을 통해 커피를 왜 좋아하는지, 커피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지역 미래 위한 인재 되어달라”

라인방촌장학재단, 고교·대학생 43명에게 5천만원

(재)라인방촌장학재단(이사장 공병근)과 (재)라인장학재단(이사장 공병탁)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3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두 재단은 이날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 모범이 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43명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날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재단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병탁 라인장학재단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장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게 되서 기쁘다”며 “미래를 위해 큰 일을 할 인재들로 여러분이 갈 배움의 길에 지역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재)라인방촌재단은 공립 전 라인건설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일체 재산을 지역인재 양성에 써달라는 유언에 따라 1994년에 설립됐다. 이후 현재까지 965명의 학생들에게 약99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2008년 설립된 (재)라인장학재단도 인재육성이란 목표로 현재까지 68명의 학생들에게 약 7000만원을 전달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곡성섬진강장학재단 11명에 장학금

곡성섬진강장학재단이 27일 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설립 1주년 기념식을 갖고 곡성중 하태용(13)군 등 모범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기념식은 추진 경과 및 성과 보고, 장학금 신입 이사장의 기념사, 곡성교육청 나임 교육지원과장의 축사, 허남석 초대이사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김일기 곡성노인회장 등 10명에 대한 감사장전달, 모범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2년 2월 장학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27일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곡성군 최초로 민간장학재단으로 출범한 재단법인 곡성섬진강장학재단은 현 곡성군 허남석 초대 이사장이 2억원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설립됐다. 지난날 현재 조성된 기금은 모두 5억6730만원



으로, 지난해 565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도 지역 출신 학생 201명에게 547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근 신입 이사장은 “장학재단의 재정 여건이 미흡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군민과 출향 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기금 확충 및 수혜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kwangju.co.kr

광산구, 출산장려 ‘임신육아교실’ 운영

광주 광산구가 미래사회를 이끌 차세대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7일 미래사회를 이끌 건강한 인구를 출생시키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차세대 인구의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행복한 예비마 교실’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아가랑 엄마랑 태교 교실’ 등 다양한 테마별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

‘행복한 예비마 교실’은 임신준비 중인 기존 여성 2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다음달 11일부터 매

주 목요일에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아가랑 엄마랑 태교교실’은 임신부 45명을 선착순 모집해 다음달 9일부터 광산구보건소와 수완보건지소에서 각각 3회씩 전문가를 참여시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광산구는 임신육아교실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태강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은 광산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62-960-8756)로 신청하면 된다.

/최송열기자 srchoi@kwangju.co.kr

송의중, 이주민 학생들에 ‘사랑의 온정’

송의중학교(교장 김해숙) 박서연 학생회장(3학년) 외 3명의 학생들은 최근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한학교인 광주 새날학교를 방문해 용돈을 절약해서 모은 돈 30만원과 학용품 등 이주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새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0여명은 한국어가 서툴다. 그래서 집 근처 일반학교에 학적을 두고 새날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고교과정이 인가돼 1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송의중학교는 지난해 4월에도 30여명이 새날학교에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펼치며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송의중 박서연 (15)양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일 자리를 위해 한국에 많이 온다고 뉴스에서 들었다”며 “한국말로 서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지용현(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저절로생협 이사장)·최희원씨 장남 하동(광주서부경찰서)군 조연원·염덕순씨 차녀 미경(상무고 교사)양=30일(토) 낮 12시 광주신안파크호텔 예식홀.

▲김용대씨 장남 태주군 조기훈(광산법무사)씨 차녀 영진양=30일(토) 오전 11시 광주 P&J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구형호씨 장남 교윤군 정공섭(여수법무사)씨 차녀 해원양=30일(토) 오후 1시 여수 웅천 더비치웨딩홀 2층 비치홀.

▲전복익씨 장남 조준영군 오광록(전남도 방재과장)·김경희씨 장녀 정아양=30일(토) 오전 11시 광주 W웨딩컨벤션웨딩홀 9층(상부지구 스타박스 건물 내)

▲염승렬(광주축산농협 광산지점장)·이선희씨 장남 정필균 임정태·이문순씨 삼녀 성지양 피로연=30일

(토) 낮 12시~14시 광주 이화웨딩홀 1층.

▲이호준(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김선호씨 차남 인성군 서창근·박민희씨 장녀 효민양=31일(일) 오전 11시 서울아라가도 반포 웨딩홀.

동창동문회

▲광주 송의고 제1회동창회 (회장 안진환)월례회=30일(토) 낮 12시 예향회관(광주세무서 옆) 010-8983-8671.

▲송원고 총동문회(총동문회장 황명성) 정기 월례회의=4월3일(수) 오후 7시 상록웨딩홀 4층 장미홀 062-384-7447.

중친회

▲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영암분원 정기총회=29일(금) 오전 11시 영암군 영암읍 공전회관(공설 운동장 옆) 011-618-3462.

▲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고흥분원 정기총회=30일(토) 오전 11시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고흥중학교 옆 좋은자리 010-6244-4249.

▲해주최씨 광주전남 도총회(회장 최재형) = 31일(일) 오전 10시 30분 시도총회 사무실(광주일고 학생운동 기념탑 옆)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중친회 (회장 류수택) 선조유적지답사=4월 2일(화) 오후 6시 30분 오리명가 062-351-5285.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책임유증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한술(부부)를 일컫는 손 우리말’ 절주예방’=4월 11일~5월 23일(총 7회·매주 목요일 오후 7

시30분~9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구)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말레이시아 REAL대학 초정 조기유학 설명회=29일(금) 오전 11시 무등빌딩 5층 유학허브 무료 SLEEP TEST 응시 선착순 접수 062-263-3434.

모집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장애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 교육생 = 교육대상은 취업 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선착순 15

명), 교육기간은 4월~9월(주1회·오후 2시·교육비 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디자인 스타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 =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스쿨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 아르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배호 가족모임 광주지부(지부장 정중원) = 불새출의 가수 배호가족 남아 회원 수시모집 010-7520-1112.

▲아름다운 가곡부르기 회원모집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이태리, 수일, 한국가곡) 2012년 2학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062-520-4243.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 = 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분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분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부음

▲심공식씨 별세 우철·우현·우진·

송경·목양·금자씨 부친상 강성열(광주자동차점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현대자동차중앙서비스 대표이사·중앙콜택시 대표이사)씨 빙부상=발인 29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48.

▲문공순씨 별세 김영배(조선대학교)·송갑·승현·승태(OB맥주)씨 모친상=발인 29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尙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일섭 (여/79세) 子/子婦: 정현익/천애경 女/婦: 정연숙/박중수, 혜숙, 혜자/김삼정 曠夫: 정일봉 호실: 201호 장지: 완도 고곡 선영	故 정석순 (여/94세) 子/子婦: 이석의, 윤의/심옥순, 권의/유은자 女/婦: 조형심, 철의/신병덕, 덕의/김신희 曠夫: 구재연 女/婦: 이영숙, 정남, 귀남/정성배 호실: 301호 장지: 화순읍 세라믹 선영
故 안순애 (여/90세) 子/子婦: 신태규/정원오, 석규/이숙, 항규/박윤숙 女/婦: 선귀남/강병주 호실: 401호 장지: 화순 남면	故 조금숙 (여/59세) 子/子대식 女/婦: 구정희/손두원 호실: 101호 장지: 화순읍 세라믹 선영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